

중국 억류 캐나다인들 1월 이후 첫 영사 접견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2명에게 영사접견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문제(Global Affairs) 부서는 도미니 바튼 주중 캐나다 대사가 금요일 마이클 스페이버에 이어 토요일에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가상 영사접견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이후 이들 2명의 캐나다인이 중국 당국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8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설립자의 딸이자 중국 화웨이 관계자인 명완저우를 체포한 이후 중국서 구금된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석방하라고 중국 정부에 계속 압박하고 있다. 캐나다 경찰은 코브릭과 스페이버가 체포되기 9일 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명을 밴쿠버에 구금했다.

미국은 사기 혐의로 명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서고 있으며 명 씨의 인도 소송은 캐나다 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녀의 체포는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전직 외교관인 코브릭과 기업가인 스페이버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 영사 관계자들의 방문을 허용받지 못했다.

트뤼도 총리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인 2명에 대해 통화하며 석방을 모색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영국 마클 왕자비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방 받아"



였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정신적·정서적 건강은 손상을 받는다"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고통되고 괴롭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정신적 휴식을 위해 일기를 계속 썼다고 밝혔다.

마클 왕자비는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대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의문이 들 때, 침묵하기로 했을 때가 자신의 건강에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서 "이는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때때로 큰 단절로 끝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부정적인 것을 다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명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왕자는 "나에게는 명상이 키(key)"라며 "전에는 내가 명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리 왕자는 자신 또한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에는 감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것 말할 때 상처"...일기 쓰며 감정 정리

해리 왕자도 "정신건강 문제 겪었다" 밝혀...명상에 집중

메건 마클(39) 영국 왕자비는 자신이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모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11일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영국 해리(36) 왕자와 마클 왕자비는 '세계 정신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날 10대들과 함께 '틴 에이지 세러피'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택에서 팟캐스트에 참여했다.

리포니아의 자택에서 팟캐스트에 참여했다.

마클 왕자비는 아들 아치를 임신했을 당시 자신에게 가해진 수많은 온라인상의 모욕과 학대를 털어냈다.

그녀는 "2019년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상) 비방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산 휴가 전후로 8개월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않았는데 (나에 관해) 만들어졌던 얘기는 거의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것이었다.

너무나 커서 어떤 감정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어린 딸이 머리에 바른게 하필 아빠 제모크림

꽃 2세 여아 제모크림 머리에 바르고 앞 머리카락, 정수리 머리 카락 빠져

영국에서 18개월 된 여아가 아빠의 제모 크림을 자신의 머리에 발라 앞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햄프셔주에 사는 메이시 사워드(2)는 엄마가 외출한 사이 아빠, 쌍둥이 자매, 오빠(4)와 함께 집에 있게 됐다. 두 살 위 오빠가 2층 입구에 설치된 안전 울타리의 문을 잠시 열어 놓은 사이 메이시와 쌍둥이 자매는 2층으로 기어 올라갔다.

2층 화장실에 들어간 메이시는 튜브 용기 하나를 집어 들었다. 메이시는 가끔 집 1층 화장실에서 아빠가 튜브에서 헤어 젤을 짜내 머리에 바르는 모습을 보곤 했다. 메이시는 아빠를 흉내내고 싶었는지 집어 든 튜브에서 크림을 짜낸 뒤 머리에 마구 발



랐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헤어 젤이 아닌, 제모 크림이었다.

딸이 제모 크림을 머리에 바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한 아빠 루크 사워드는 메이시의 머리를 물로 씻겼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제모 크림의 영향으로 메이시의 앞 머리카락 대부분과 정수리 머리카락까지 사라졌다. 헤어 라인이 머리 중앙에

서 시작하게 돼 버렸다.

메이시의 엄마 커스티 사워드는 "메이시의 앞 머리카락이 남아 있지 않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단지 가위로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커스티는 메이시가 다가와 안아주자 울음이 터졌고, 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남편이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머리를 바로 씻겼어야 했는데, 목욕을 시키려고 옷과 기저귀를 벗기면서 10분 넘게 헤비했다"고 속상해하면서 "메이시의 머리를 보고 남편과 두 시간 넘게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외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메이시의 가족과 친지들은 메이시의 헤어스타일이 마치 공포영화 '잇(it)'에 등장하는 광대 페니 와이즈처럼 됐다고 속상



해했다.

하지만 메이시 가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엄마 커스티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모발이 풍성했던 메이시는 자신의 민머리를 신기한 듯 자주 문질러 본다. 또 엄마가 메이시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고

개를 숨여 머리를 보여준다고 한다.

커스티는 "누군가는 우리 가족에게 할러윈 데이(10월 31일)에 페니 와이즈 분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추의 맛을 같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맛이 살맛난다. 맛난 김치와 정갈한 반찬, 반조리식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열무김치 3.6kg	부추김치	우영조림	부대찌개
배추김치 3.6kg	오이스박이	연근조림	감자탕
백김치 3.6kg	깍두기	마늘쫀무침	오삼불고기
총각김치 3.6kg	겉저리	무우말랭이	LA 갈비
나박김치 3.6kg	고추피클	쇠장조림	돼지갈비
동치미 3.6kg	갯잎절임	계란장조림	소불고기
맞춤김치 3.6kg	고추절임	오이지무침	떡볶이
파김치	호두멸치	김치해물전	

가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김치! 직접 담그기엔 염도가 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먹긴 부담스러우시나요? **Red House**에서 주문하세요. 진짜 엄마 손맛으로 집에서 정성스레 담그어 판매합니다.

\$100 이상 무료배송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화주세요.

Red House | 403.402.2774

Math Tutor - Alex

수학 · 물리 · 화학 개인 레슨

Math (10-20-30), Physics (20-30), Chemistry (20-30)

- 대상: 고등학생/영재학교 (GATE) 학생 환영
-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
- 교사 경력:
 -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U of C
 - 고등학교 수학 ·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
 -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

전화: (영어) 403-282-9220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bageorge@topnotchcanada.ca